

# '국가번역위원회' 설치를 제창한다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 지식산업사 대표

세계사에서 어느 나라나, 외국의 문물을 수용 · 수입하고 또 자국의 문물을 외국에 소개 · 수출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며 앞으로는 더욱 긴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겨레는 일찍부터 이러한 일에 직면했으나, 외국의 문화를 책으로 번역하여 우리 글로 읽게 하는 일에는 남들처럼 그렇게 앞서 가지 못했고, 우리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일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간에 크게 힘쓰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외국 서적의 번역의 경우,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나라에서 벌인 諺解(한글 번역)사업도 봉건왕조인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을 굳건히 하는 일에 관련되는 것이 주었고, 유교 경전이나 唐詩 등 교육용 도서의 번역에 그치고 말았다.

개화기에 접어든 19세기말부터 외래문화의 적극적 수용의 차원에서 번역출판이 비롯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일본어 번역본의 重訳이거나 심한 경우는 중국인들이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한 중국어판을 다시 번역하는 이중삼중의 중역 번역서가 나올 정도였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기현상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는 우리말과 글을 잃어, 사실상 번역출판은 아예 사라졌으며 일본어판만을 읽는, 문자 그대로 식민지 문화가 지배했던 것이다.

8·15 해방 이후 말과 글을 되찾아 뒤늦게나마 새 문화 건설을 위한 번역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서두르다 보니 거의가 일본어 번역판의 중역이었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출판된 번역물의 열 가운데 예닐곱은 일본어의 중역본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 당시나 그 이후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러한 절름발이 번역문화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우선 해당 외국어 전공자가 드문데다 특정분야의 경우 전혀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져 있다. 국내의 수많은 대학에는 각국어를 전공하는 학과가 설치되어 해마다 많은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더구나 외국의 대학에서 해당언어를 전공하고 귀국한 학자나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번역출판물의 수준은 어떠한가. 물론 해방당시나 6·25후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만족할 만한 지경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이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

근래 독자들의 일반적 교육수준이 높아져 수준미달의 번역출판물에 대한 거부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어판 외국서적을 읽으면 도대체 끝치가 아파 읽어나갈 수가 없어 자신의 해독력을 닦으며 책을 덮어버렸는데, 어느 기회에 원서를 구해 읽어보니 그렇게 쉽게 이해되더라는 이야기를 가끔 신문 투고투란에서 쉽게 발견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번역출판물의 질이 아직도 낮은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데는 한 두가지 원인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 짧은 글에서 그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열거할 계제가 아니어서 할애하거니와, 저질의 번역물이 독서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음으로 해서 선의의 독자들이 책을 멀리하고 결국은 국내의 모든 학문과 예술분야의 창작물이 저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번역출판물의 질의 제고는 출판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글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이제부터 우리는 외래문화의 수용만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 작가의 노벨문학상 등 우리 문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 · 수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학계 · 예술계 · 교육계와 출판계를 망라한 전 문화영역에서 중지를 모아 가칭 國家翻譯委員會 같은 기구를 조직 · 가동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뉴스	2	올 11월부터 ISBN제도 본격시행 · 외
표지인물	4	다들 알지만 잘은 모르는 이야기 결정판 「이습전집」 펴낸 유종호교수
시론	6	문화의 광복과 우리의 책들 - 김병익
에세이특집	8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즐거움 - 김형국
	9	나의 추억은 책갈피에서 춤춘다 - 심상대
	10	한여름 무더위 식히는 서늘한 독서 - 정진섭
	11	'행복한 저자'의 시원한 여름나기 - 장정일
서평	12	최몽룡 외 「백제사의 이해」 - 최성락 조기준 「한국자본주의발전사」 - 이호철
	13	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 권용우 최길성 「한국인의 한」 - 김열규
	14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 이혜순 최동호 「평정의 시학을 위하여」 - 이남호
	15	오양호 「문학의 논리와 전환사회」 - 이명재 조남현 「우리 소설의 판과 틀」 - 김상대
	16	신동욱 「시상과 목소리」 - 김용직 하근찬 「검은 자화상」 - 김승욱
	17	프레드릭 힐 외 「디지털시스템」 - 황희룡 김태원 「춤 문화론」 - 김재현
출판화제	18	분단40년 거리 좁히는 북한체험기
	19	해방공간의 정당사 복원작업
이 책을 말한다	20	소설이니까 허용될 몇가지 허물 - 홍원식 한익사가 읽어본 「소설 동의보감」
화제의 인물	21	대기업 경영인서 출판인 변신한 김용원씨
이 책 그사람	22	「살아있는 동물의 세계」 펴낸 김정만씨 「한국의 누」 펴낸 박연곤교수
	23	「사람아, 아 사람아」 펴낸 신영복씨 「꿈의 이동건축」 펴낸 박주택씨
현지취재	24	중국의 책과 출판, 서점과 도서관 - 부길만
해외출판	26	'오디오북'美文전자들에게 큰 인기 - 이희재
세계의 책	28	비로소 베일 벗는 '외인부대 神話' · 외
	30	독자서평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